

K-방산,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로 수출 선봉에 선다

- 올해 방산수출에 무역금융 10조 투입… 제7차 수출현장 지원단
- 「FA-50」 북미시장 진출, 국산 헬기 「수리온」 올해 첫 수출 성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4.18.(목)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본사를 방문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방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우리나라 방산 업계는 지난 2년간 300억 불 이상 달성한 수주의 수출 성과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금번 안 장관이 방문한 KAI는 가격 경쟁력 및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토대로 다목적 전투기(FA-50) 등 항공기 220여 대를 인니, 이라크, 폴란드 등으로 수출해 왔다. 작년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체결에 이어 올해는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으로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군의 노후 헬기 대체 목적으로 '13년 개발된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도 올해 중동지역에서 첫 수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 확대 추세에 따라 '27년까지 방산시장은 9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도 우리 방산업계가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산 수출·수주에만 올해 10조 원 이상 무역금융(수주금융+선수금보증+제작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전 세계 방산거점 무역관을 32개로 확대하고 방산전시회(KADEX) 등과 연계해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

둘째,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방산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17일 수립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토대로 '24년에만 첨단방산 소부장 분야에 연구개발(R&D) 자금 4천억 원 투입, 연계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첨단 방산 기술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FA-50을 기존 복좌형뿐만 아니라 단좌형 개발을 통해 작전반경 증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290억 원을 투입하여 북미 등으로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수리온, 차세대 전투기(KF-21), 소형무장 헬기 등으로의 수출품목 다양화를 적극 지원한다.

안 장관은 다목적 전투기(FA-50)와 한국형 헬기 수리온(KUH) 생산현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탑승, 점검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030)
		담당자	팀 장	이동섭	(044-203-4031)
		담당자	사무관	장지혜	(044-203-4017)
		담당자	사무관	팽기득	(044-203-4035)
	제조산업정책관 우주항공팀	책임자	팀 장	김봉석	(044-203-4305)
		담당자	서기관	임형남	(044-203-4306)
		담당자	주무관	류재훈	(044-203-430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1 수출현장 지원단 방산기업(KAI) 방문개요

□ 일시 · 장소 : 4.18일(목) 14:30~15:50(80'), KAI 사천본사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무역정책관, 우주항공팀장
- (방산수출기업) 윤종호 KAI 부사장, 손경석 퍼스텍 대표, 전용곤 현대파워시스템 대표, 권영민 엠앤씨솔루션 대표
- (지원기관) 전춘우 KOTRA 부사장, 정재용 무역보험 프로젝트금융본부장

□ 세부계획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30 ~ 15:50 (80')	시찰 I (12')	고정익(전투기) 수출현장 시찰
		고정익동
		○ 환영 및 기념사진 촬영
		○ 고정익(KF-21, FA 50) 시찰 및 기념 촬영
	간담회 (40')	KAI 및 방산 수출기업 간담회
		고정익동 회의실
		○ 모두 말씀
		○ 인사 말씀
	시찰 II (26')	회전익(헬기) 수출현장 시찰
		회전익동
		○ 회전익동(수리온, 소형무장 헬기) 시찰
		○ 우주센터(위성, 시뮬레이터 생산)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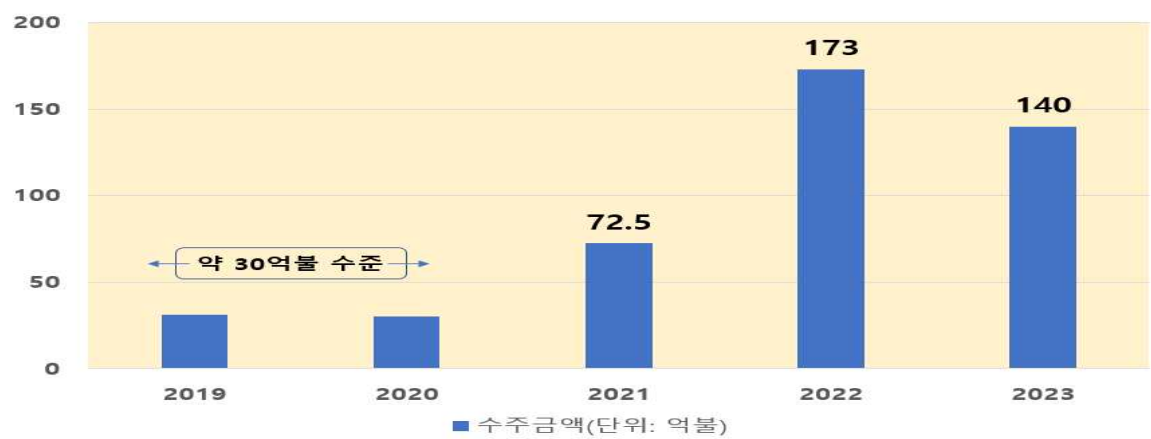
□ 제작현장 참관 항공기

구 분	용도 및 성능	사진
T-50/ FA-50	· 고등훈련기 겸 다목적 전투기 · 최대속도 : 1,836 km/h · 최대이륙중량 : 12,383 kg	
수리온 (KUH)	· 한국형 기동헬기 · 최대속도 : 298 km/h · 최대이륙중량 : 8,709 kg	

참고2

글로벌 방산 수주 및 시장 현황

우리나라 글로벌 방산 수주 현황



* 출처 : 국방부, 국방연감

글로벌 시장 점유율('19~'23 수출실적 기준)

구분	국가명	점유율(%)	구분	국가명	점유율(%)
1	미국	42	6	이탈리아	4.3
2	프랑스	11	7	영국	3.7
3	러시아	11	8	스페인	2.7
4	중국	5.8	9	이스라엘	2.4
5	독일	5.6	10	한국	2.0

* 출처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4

글로벌 방산 기술수준('21년 기준)

기술수준	국가
최고선진국	미국
최선진권	프랑스, 러시아
선진권	독일, 영국, 중국, 이스라엘, 일본, 한국, 이탈리아
중진권	스웨덴, 캐나다, 인도
하위권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 출처 :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서 2022